

buddhanews.com

#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산다면 부처!

## 25면에서 계속

들이 아닌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불이 아니게 착하게 됨으로써 바로 물리가 터지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따라오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고 말로다가 이놈 저놈 하고서 육을 아무리 해 봤던들 더욱더 차게만 느껴지고 더욱더 멀어만지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없는 가르침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여하게 깨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짚에 가서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을 들어 보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향(慧香) 해탈향(解脱香) 해탈지견향(解脱知見香)' 하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그지없이 깨칠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말입니다. 계향이라고 해서 계를, 280계나 350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계법을 지키는 것만 단단히 지켜도 못 지키는 단 오게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첫째 계향이라고 했으니가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누가 되게 해서 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잡혀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부처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직선으로 들어가지 마안악에 잘 지키는 것만 계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향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또는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 누가 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닦는 데로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복을 가져오죠. 마음이 없어지죠. 증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나씩 사형 사제들이 모두 화복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한 형제들 간에, 부모자식사이에 화복을 가져온다는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향 아닌 계향을 지키는다면, 돌아가는 용도에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을 '너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향이니, 이것은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곱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도 네 몸이니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찢고 찢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돌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정향' 할 때에 우리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붓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

나는 시기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게 다스리고 여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향에서부터 잡혀 나가신다면 계향은 정향에 하나가 되고, 해향이 잘되면 정향에 또 하나가 되고, 정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도 모두가, 다섯 가지가 모두 하나의 정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지견향, 그것은 우주 일체 만물만생을 다 밝게 보고 보살피며 바로 결립 없이 여여하고 구족하게 다스리면서, 밝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많은 중생들을,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응신으로서 보살피는 것입니다.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이나, 말이 있는 중생이나 말이 없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무주소 보시할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다루는 까닭입니다. 천백억이 다 합은 해야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자생중생들을 다스려서 한마음에

그놈이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형성을 시켜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죽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곱데길 벗겨 버리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마땅히 '내가 내가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부처는 중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요, 중생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다. 모두가, 시발점도 중점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시발점도 중점도 따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심으로서 모든 걸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심으로서 동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이 바로 자성 부처를 상봉해서 잘 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설이 됐다 이 소립니다. 가설이 돼서 돌아가니까 남이 모른다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말긴다면 화복을 가져오고 그 마음도 밝아져서 둘이 아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자비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집을 비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놀러 나가고 자기네들이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대로 나가서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나가더라도 좀 큼직하게 글씨를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무게 아무게야, 너희들 사랑해! 여기서 너희들 좋아하는 것 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꺼내 먹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줘.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려나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도 협조해 줘.' 하고 써서 뽀뽀도 거기도 좀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해서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곱담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만, 돈만 주고 음식만 잘해 주면 그 모두가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화복해지고 얼마 아빠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 주면서,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고 야단법석이 아니고 아주 착실해지죠. 그렇다고 얘기가 주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다들 되찾았어요. 갈라섰던 자손들하고도,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졌던 분들이 다 화복하게 사랑을 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바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까닭에 불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하고, 나부터 믿어야 하고,  
나부터 발전해서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누는 까닭입니다.

또 '해향'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써 돌로 보지 않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밝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해향입니다. 돌로 보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해향입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직여주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잘한다는 데서 깡달리고 못한다는 데서 깡달리고 회개다 해서 깡달리고, 이거는 뭐 깡달리는 데 아주 난장판이 돼 있어요.

'해향' 했으니 다음에 해탈향이 있죠. 만물만생의 무명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여여하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외부의 모든 중생들이나 내면의 자생중생들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

나라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생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부분 부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 작용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여러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정말 천백억이라는, 아니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 하나하나가 바로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서 자기가, 팔죽 술에서 팔죽이 끓는 거와 같습니다. 떠 데서 나온 게 아니죠. 팔죽 술에서 팔죽이 끓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나오는 대로 거기가 되 돌러 놓는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다 포인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했던 게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되돌려 놓으면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만큼이나 예 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어찌 거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끼면 빼고 뺏으면 끼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면 정말로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은 사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어보, 당신 시강하지 않았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고, 그리고 주인공에다가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위 법문은 1993년 7월 24일 마산대법회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권,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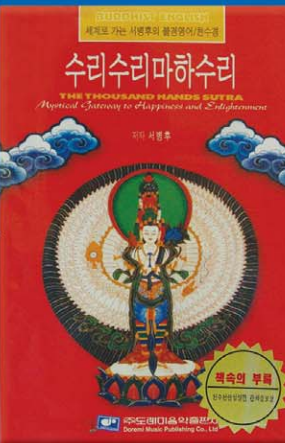


##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봉쇄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